
UNCTAD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10-2012

2010. 12.

UNCTAD's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10-2012

조사 방법 요약

- o 236개의 비금융권 다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116개의 투자 진흥 국가 기관, 그리고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설문 대상을 선정하여 '10년부터 '12년까지 예상되는 투자 동향에 대해 설문조사
- o 조사 기간: '10. 2월~5월
- o 조사 대상 기업 지역별 분포: 유럽 (56%), 북미 (12%), 일본 (14%), 기타 선진국 (4%), 개도국 (14%)
- o 조사 대상 기업 업종별 분포: 1차 산업 (4%), 제조업 (61%), 서비스업 (35%)
- o 보고서 발간 일자: '10. 9. 6

- Executive Summary -

- ('09년 대비 FDI 성장과 투자 환경 전망)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이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 즉 '10년 보다는 '11년과 '12년에 성장이 낙관적일 것이라 봄
- (경제 위기에 따른 해외 투자와 사업 운영) 세계 경제 위기가 해외 투자 계획과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그 영향이 큰 규모의 투자 철회를 일으키지는 않음
- (다국적 기업의 국제화 추세) '12년에 기대되어지는 기업 국제화의 단계가 모든 면 (판매, 고용, 자산, 투자 지출)에서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다국적 기업 응답자들의 의견. 또한, 자사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은 '12년에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선호 지역) 두드러진 점은 투자 선호에 대한 관심이 '09년 대비 아시아 신흥 경제국으로 더욱 집중되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투자 선호 국으로서의 자리도 여전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

□ 서론

다른 경제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FDI 흐름 또한 '08년 말 이후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음. 계속되는 심각한 경제 위기는 다국적 기업들(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의 지속적인 투자와 해외 확장 성향 및 역량에 대한 우려를 야기 시킴. '09년의 상황을 정리 해보면, FDI 흐름의 하락 원인은 기업의 이익 불안정, 재정 자원의 감소, 시장 기회의 퇴조, 그리고 세계 경제의 하향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음. FDI의 감소 흐름은 또한 자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을 해외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음.

'10년 중반의 전체 FDI는 2, 3년 전보다 더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음. 그리고 이 수치가 상승세에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함. 이 설문서는 언제 FDI 흐름이 명백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지, 다국적 기업들은 어떤 지역과 산업들에 투자를 선호할 것인지, 어떤 나라와 지역이 가장 큰 FDI 활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 내용으로 작성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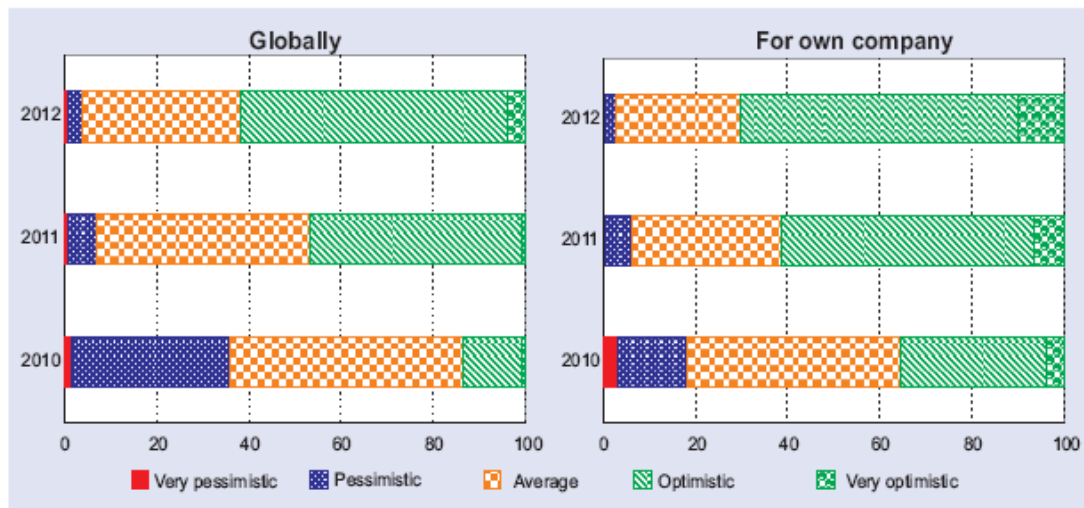
□ 설문 조사 결과

설문 응답 회사들과 IPAs는 '10년 투자 환경 단기 전망 (2010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중기적인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09년 WIPS이래로 투자 환경에 대한 의견이 더 낙관적으로 됨.

'08-'09의 반응과 달리, '10년 WIPS는 기업들의 비즈니스와 투자 환경에 대한 낙관적인 인지의 정도가 약간의 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09년 응답자의 47%가 종합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비관적인 관점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 '10년에는 36%로 그 수치가 감소.

Figure 1. TNC's level of optimism/pessimism regard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2010-2012

(as a percent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Source: UNCTAD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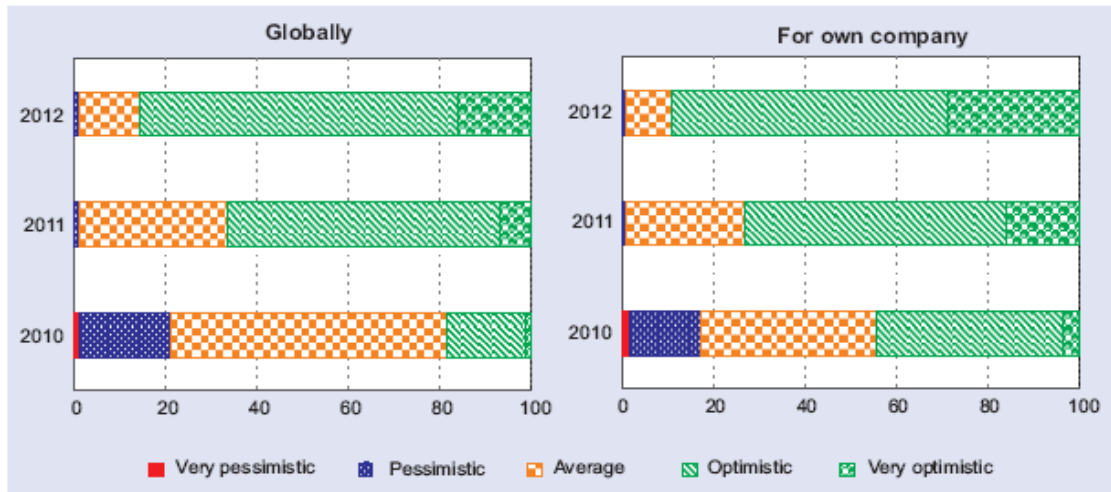
다국적 기업들의 비즈니스와 투자 환경의 낙관론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더 확고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전체 응답자의 불과 13%가 '10년에 국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 데 비해, 47%는 '11년에 그 보다 더 많은 62%의 다수가 '12

년에 낙관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전망함.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여전히 경제위기의 단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응답자는 '12년까지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고 있음 (figure 1).

응답자들은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환경 개선보다 자신의 영역에 대한 환경 개선에 더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면, 70%의 응답자가 '12년에 자사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으며, 이 수치는 국제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그들의 전망보다 약 8%더 높은 수치임 (figure 1).

이런 낙관론은 다국적 기업들 외에 FDI 관련 다른 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 지는 전망임. 예를 들면, IPAs의 응답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의 FDI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확고히 함. 다국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IPAs도 국제적인 전망보다 자국에 대해 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고,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비율이 더 높았음 (figure 2).

Figure 2. Level of optimism/pessimism of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environment
(as a percentage of responses from the IPAs surve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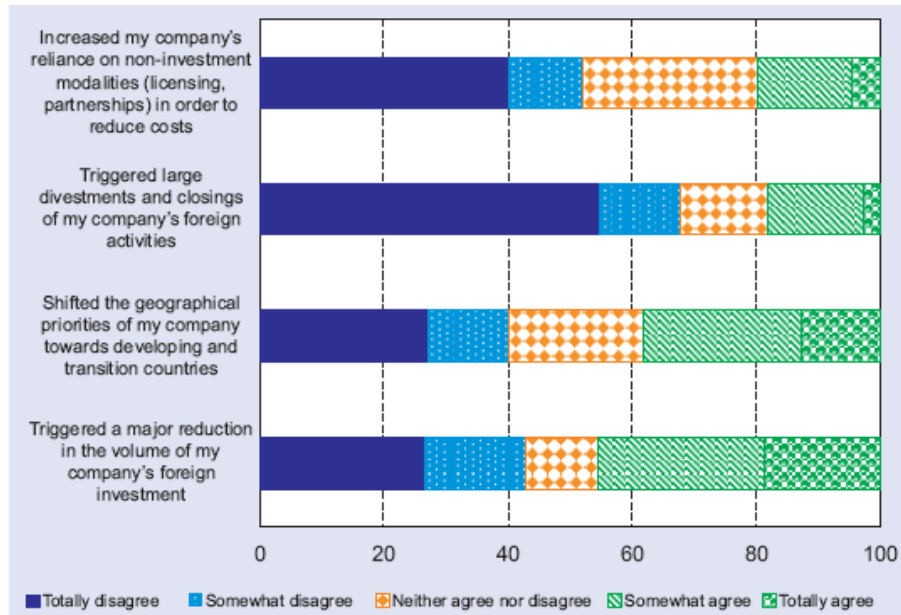


Source: UNCTAD survey.

세계 재정적, 경제적 위기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 자산에 대해 큰 규모의 투자 철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을 해외로 확장 하고자 하는 열의를 그대로 유지.

응답자의 45%가 세계 재정, 경제 위기는 국제 투자 프로그램과 지출에 큰 영향을 미쳐 투자와 지출에 감소를 일으켰다고 말했지만 (figure 3), 단지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 (18%의 응답자)만이 경제 위기로 그들의 해외 사업의 상당 부분을 팔거나 없애는 등 큰 규모의 투자 철회가 있었다고 말함.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자산을 처분하기 보다는 운영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이어나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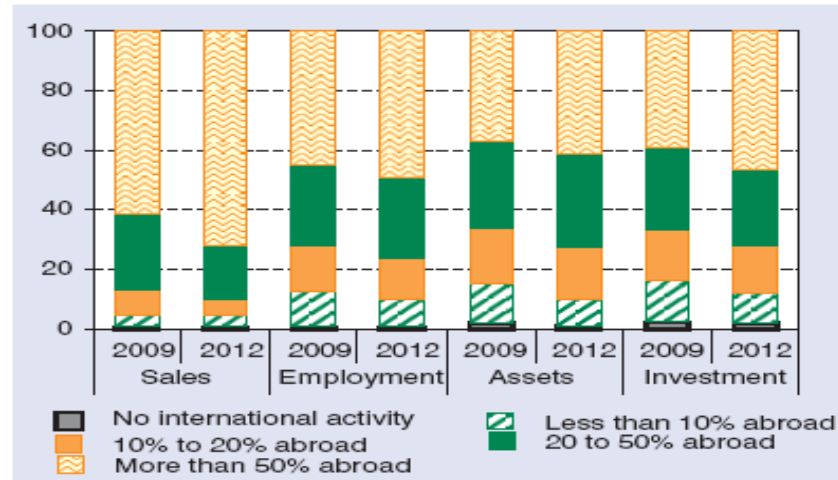
Figure 3. TNCs' level of agreement with various observations about the impact of the crisis on their investment strategies
(as a percent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Source: UNCTAD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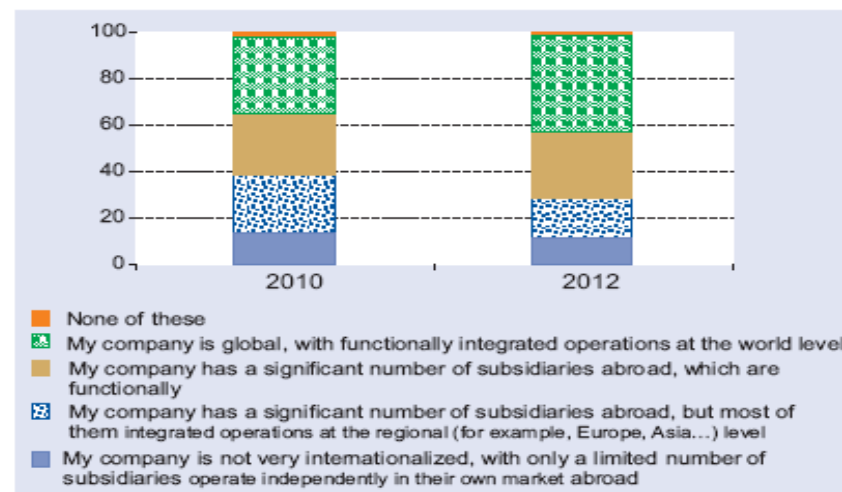
WIPS 응답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자산, 고용, 투자, 판매 영역에서의 해외 활동의 몫이 실제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음 (figure 4). 39%의 응답자가 '09년에 해외 활동의 몫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응답한 반면, '12년에는 응답자의 47%가 그 같이 답변하여 해외 활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또한, '09년에는 33%의 응답자가 자신들을 글로벌 기업이라고 표현한 반면, '12년에는 41%로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증가 (figure 5).

Figure 4. Internationalization prospects for TNCs
(as a percent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Source: UNCTAD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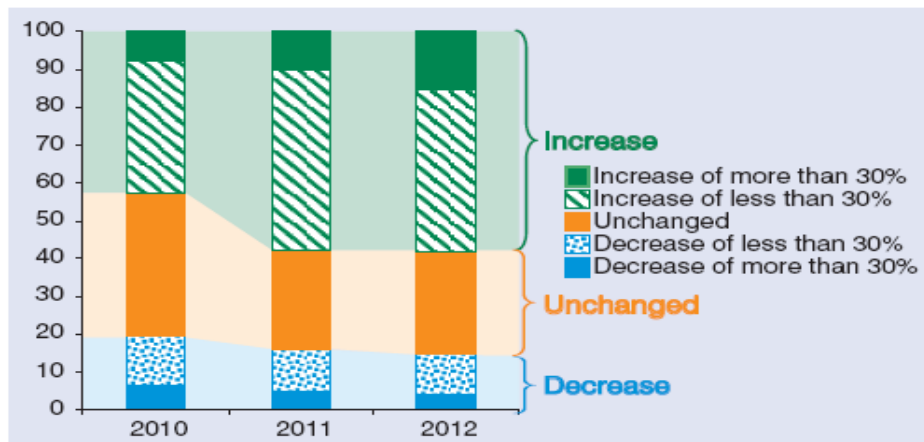
Figure 5. Degree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of TNCs
(as a percent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Source: UNCTAD survey.

다국적 기업 응답자의 43%는 '09년 낮은 수치에 비해 '10년에 국제 투자 지출을 증가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11년과 '12년에 꾸준히 증가하여 응답자의 약 58%가 이러한 지출 증가를 계획하고 있음 (figure 6).

Figure 6. Prospects for respondent companies' FDI expenditures in 2010–2012, as compared to 2009
(as a percent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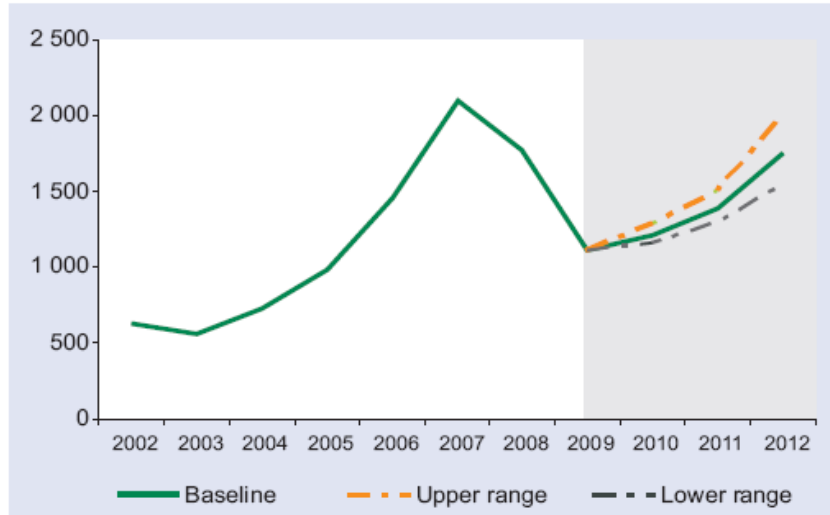


Source: UNCTAD survey.

UNCTAD는 '11년 FDI 유입이 1조3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범위 내에 다다를 것이며, '12년에 1조 6천억에서 2조 범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

UNCTAD는 '11년 FDI 유입에 가속도가 발생하기 전에 '10년에 느리지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제안함. 설문조사 결과, 다국적 기업들의 다른 지표, 그리고 FDI 활동들을 바탕으로, UNCTAD는 '11년 FDI 유입이 1조 3천억에서 5천억 수준에 다다르며 '12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1조 6천억에서 2조 범위 내로 증가할 것이라 평가했음. 이러한 평가 전망과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UNCTAD는 '09-'12년 FDI 국제 유입의 진화와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함 (figure 7).

Figure 7. Global FDI flows, 2002–2009, and projections for 2010–2012
(billions of dollars)



Source: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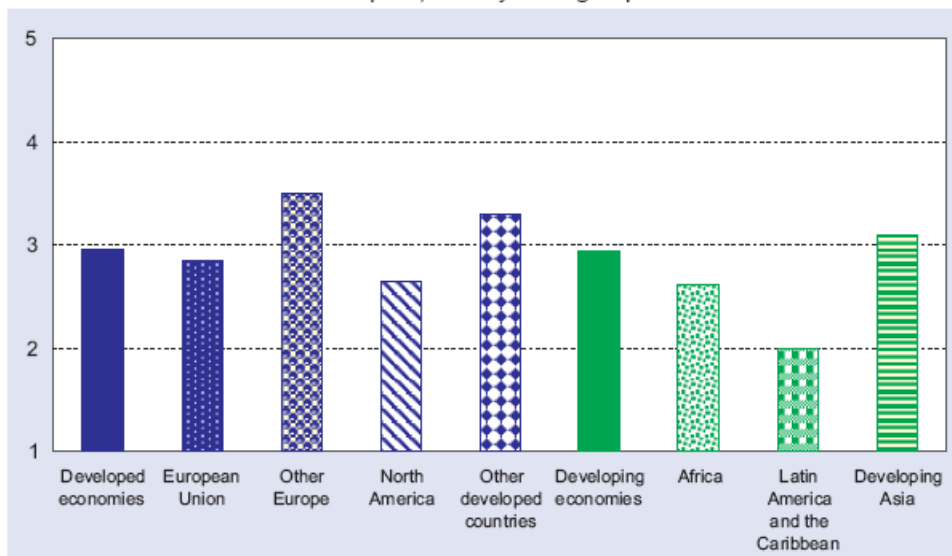
Note: The baseline estimates for 2010, 2011, and 2012 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WIPS, taking into account data from the first quarter of 2010 for FDI flows and the first five months of 2010 for cross-border M&As for the 2010 estimates, as well as the risks and uncertainties elaborated upon in WIR10 (UNCTAD, 2010). In addition to the baseline scenario, two less likely scenarios are included, as upper and lower ranges, in the figure.

figure 7에 있는 3가지 대안적 시나리오는 '10년 세계 GDP 성장 회복의 가장 최상의 평가에 의존하여 만들어짐. 또한, 이 3가지 시나리오는 최근 IMF의 거시 경제 전망, 여러 국제 기관과 연구 협회의 관점과 그 맥을 같이함.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신흥 발전 경제의 FDI 순유입은 '09년 2,748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10년 2,941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 평가됨. 국제 금융 협회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의 30개 신흥 경제에 대한 FDI 유입 평가는 '09년 3,470억 달러에서 '10년 4,350억 달러로 증가를 나타냄. EUI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국제 FDI가 '10년에 1조 3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14년 이후에 2조에 다다를 것이라 평가함.

단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 위기는 국가의 경제와 상관없이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보다 국제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 전망에 대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더 낙관적인 모습을 보임.

‘09년에 보고된 FDI 유출의 일반적인 퇴조와 함께 경제위기가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임 (figure 8).

Figure 8. Impact of the current crisis on TNCs' FDI programmes and expenditures in host regions
(aver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1: no impact; 5: very strong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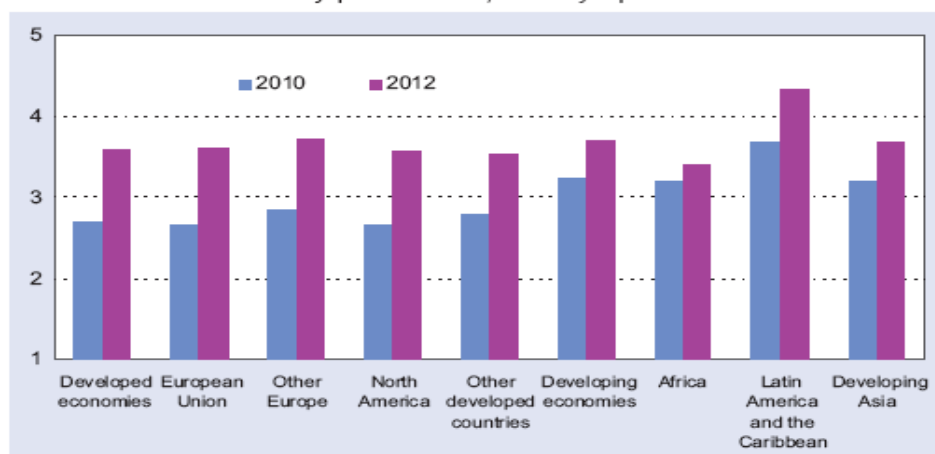


Source: UNCTAD survey.

국제 비즈니스 환경의 인식에 관해,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들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들 모두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 (figure 9).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11년과 ‘12년에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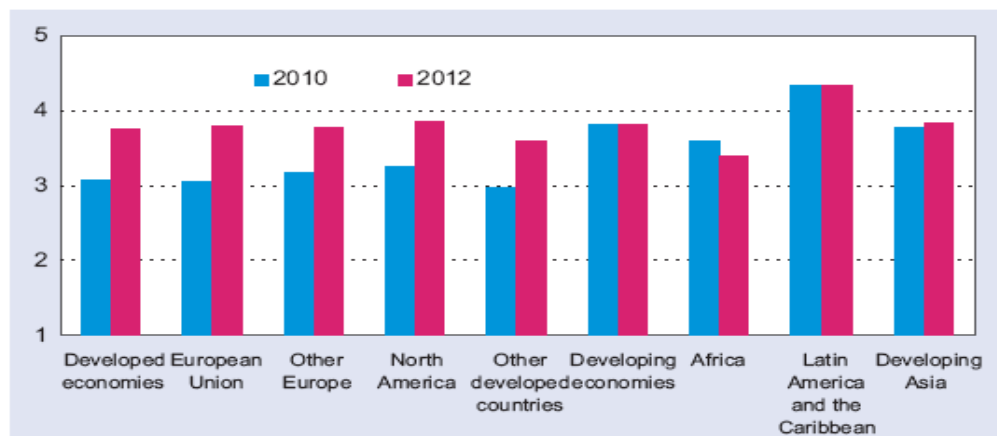
스 환경의 확실한 개선을 예견함.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앞서서와 같이 긍정적인 예견을 보임 (figure 10). 그러나 개발도상국, 특히 신흥 아시아국들은 선진국들, 특히 유럽 보다 '09년부터 '12년까지의 FDI 지출의 더 큰 증가를 기대 (figure11).

Figure 9. Level of optimism/pessimism of TNCs regarding the global investment environment in 2010 and 2012, by home region
(aver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1: very pessimistic; 5: very optimistic



Source: UNCTAD survey.

Figure 10. Level of optimism/pessimism of TNCs regarding their own investment prospects in 2010 and 2012, by home region
(aver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1: very pessimistic; 5: very optimis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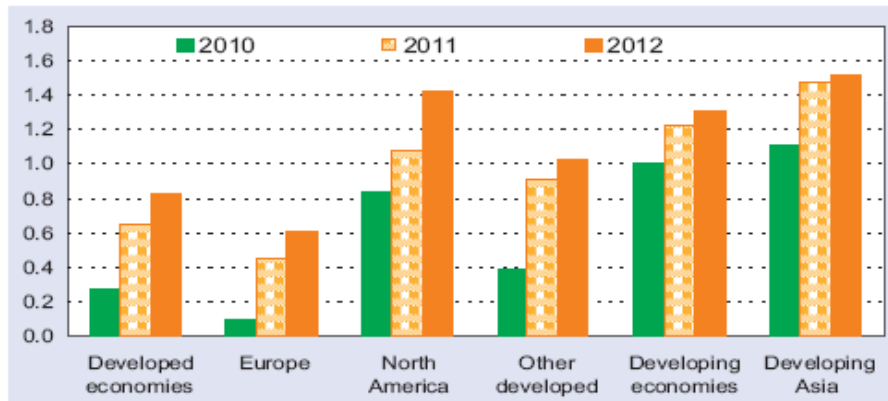


Source: UNCTAD survey.

Figure 11. Prospects for respondent companies' FDI expenditures in 2010–2012 as compared to 2009, by home region

(aver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4: very large decrease; + 4: very large incr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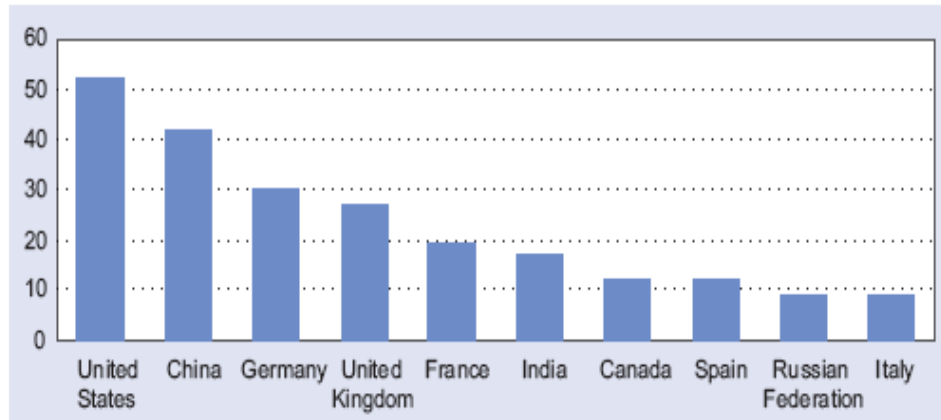
Source: UNCTAD survey.

여전히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큰 규모의 해외 투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상위 20의 가장 유망한 투자국 사이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체제 전환국과 개발도상국임. 이중, 중국이 세계 순위 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와 러시아 연방은 각각 6위와 9위를 차지했음.

Figure 12. The most promising investor-countries for the next three years ahead according to IPAs

(number of times that the country is mentioned as top investor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by respondent IP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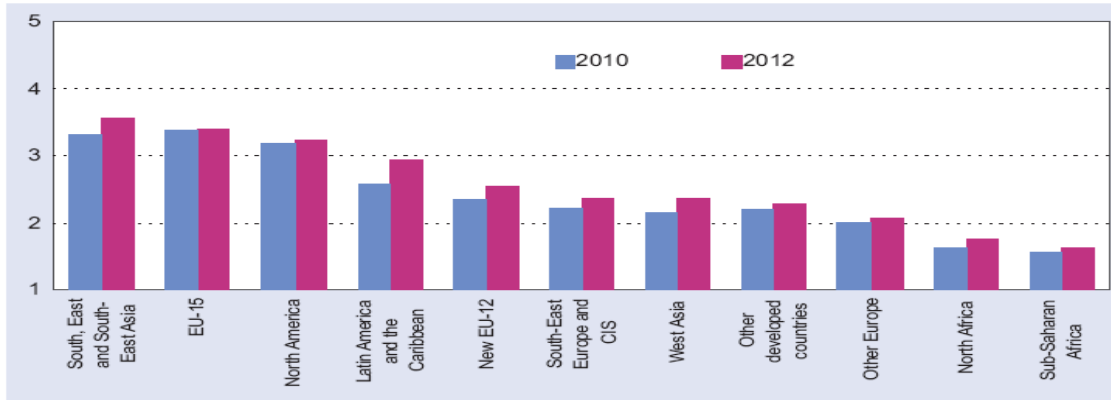


Source: UNCTAD survey.

WIPS 결과,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가 다국적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지역으로서 나타남. 하지만, EU-15와 북미는 여전히 FDI의 선호 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상위권 유지를 이어나가고 있음.

경제 위기 이후,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더 뛰어난 경제 회복력을 보여 주었음. 게다가, 다국적 기업들은 심각한 불경기에 있는 내수 시장 밖에서 보다 활발하게 성장 기회를 찾을 것임. WIPS 조사 결과, 다국적 기업들은 개발도상국과 체제 전환국, 특히 남, 동, 동남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중남미로의 투자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그러나 EU-15와 북미는 가장 선호되는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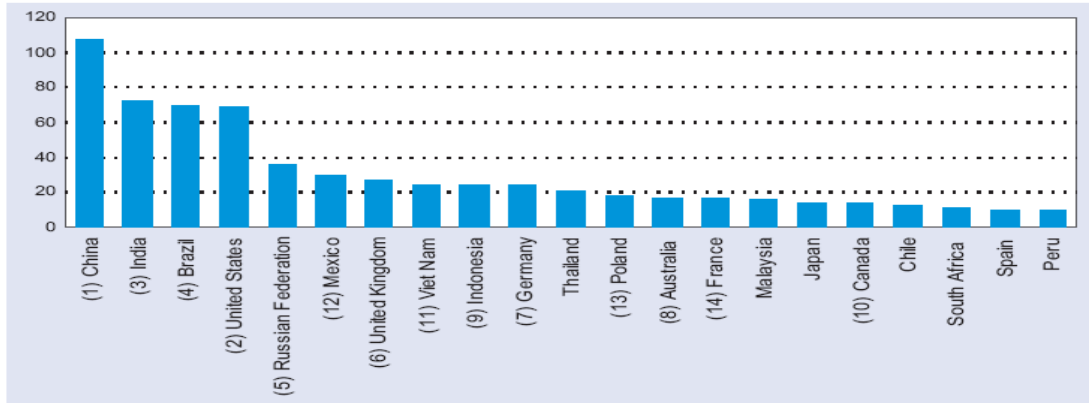
Figure 13. Priority given to each host region by the respondent TNCs in their FDI plans, 2010 and 2012
(aver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1: no priority; 5: top priority



Source: UNCTAD survey.

FDI가 가장 선호되는 우선 지역의 순위는 WIPS의 작년('09년) 순위와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줌. 중국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인도, 브라질, 미국, 그리고 러시아 연방 순으로 따르고 있음. 4개의 주요 신흥 경제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연방이 상위 5개의 투자 선호 지역 안에 최초로 모두 랭크되어 있음. 작년 ('09년) 상위 15개의 나라 중 아시아 국가가 5개로 구성 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 ('10년)에는 6개로 그 수가 증가함으로써 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중요성이 더 가중된 것으로 보임. 반대로, 영국과 호주의 순위가 하향된 것을 통해 선진국들에 대한 선호도는 약간 퇴조한 것을 알 수 있음 (figure 14).

Figure 14. Top priority host economies for FDI for the 2010-2012 period
(number of times that the country is mentioned as a top priority for FDI by respondent TN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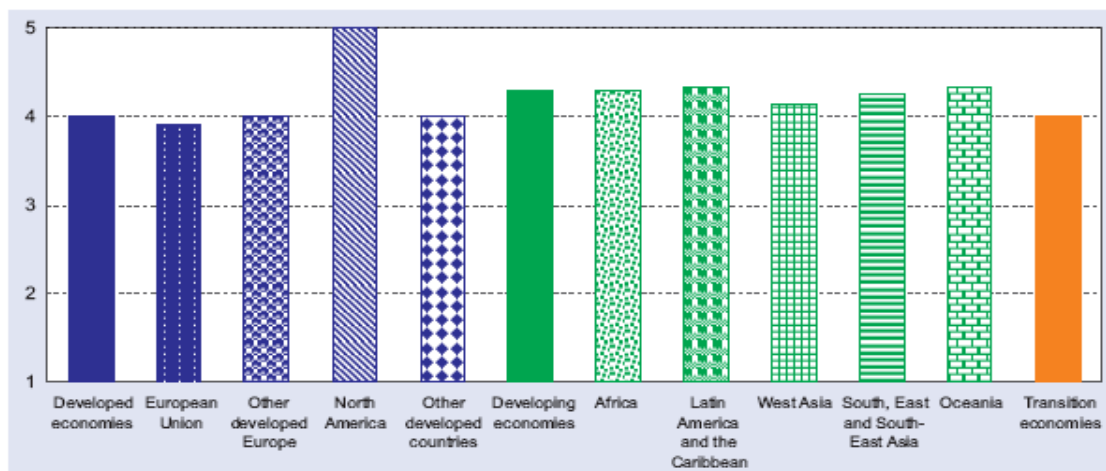


Source: UNCTAD survey.

Note: Rankings according to last year's survey are given in the parentheses before the name of each country. The countries without numbers were ranked outside the top 20 in the last year's survey.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의 IPAs는 선진국, 특히 EU-15의 IPAs 보다 자국의 FDI 전망에 대해서 더 낙관적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의 관점과 공통된 의견을 보임 (figure 15).

Figure 15. Level of optimism of IPAs regarding their own country's inward FDI prospects in 2012
(average of responses from the IPAs surveyed)
1: very pessimistic; 5: very optimistic



Source: UNCTAD survey.

중기의 FDI 성장은 제조 분야보다 제 1차 산업 부문과 서비스 분야에서 더 활기를 보일 것으로 고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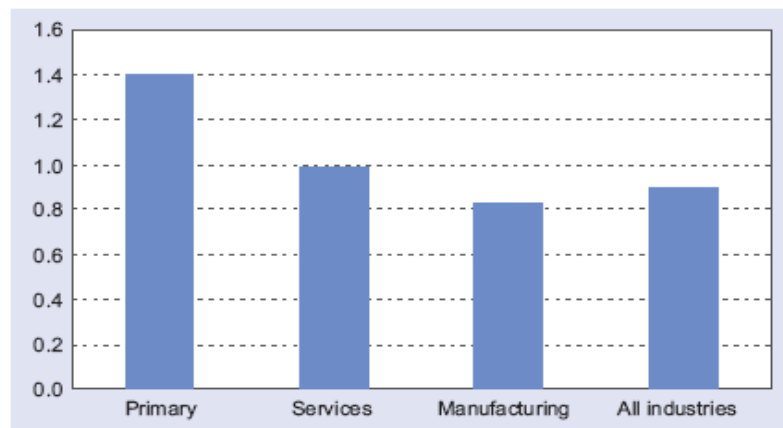
FDI 성장 전망은 제 1차 산업 부문과 조금 더 나아가 서비스 분야가 제조 분야보다 훨씬 밝을 것으로 내다 봄 (figure 16). '09년 낮은 수요와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 1 차 산업 분야의 회사들은 야심찬 투자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음.

당연히, 제조 분야의 경제위기 타격은 그 산업의 분야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남.

광물, 자동차, 화학, 전자 및 금속 산업과 같은 분야는 상당한 생산 과잉으로 해외 투자 프로그램을 삭감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린 반면 제약, 음료, 담배 분야는 경제위기 타격을 덜 받음. '09년 하반기 이래로 제조 분야의 해외 투자 프로그램에도 증가 추세가 보이면서 전체적인 회복 신호가 명백해진 상태임.

Figure 16. FDI growth prospects, by sector and for all industries 2009–2012

(aver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4: very large decrease; + 4: very large increase



Source: UNCTAD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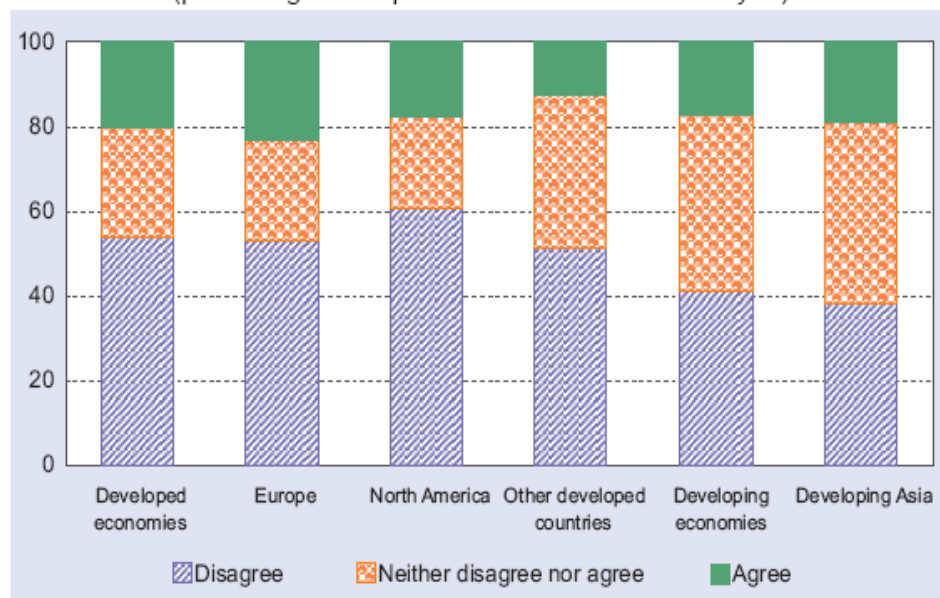
통신, 유틸리티,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예: 건강 서비스) 운영 회사들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므로 경제 위기에 더 적은 영향을 받음. 그러므로,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투자 계획은 제조 분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었고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었음. 중기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FDI 성장은 제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날 전망.

경제 위기가 기업들이 지분 투자와 비교했을 때, 비 지분 투자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 원인이 아님. 이는 비 지분 투자에 많은 무게를 싣는 추세가 장기적이고 지분 투자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하는 경향을 띠는 것을 제시함.

다국적 기업들은 지분 투자 형태를 미래의 해외 사업 팽창의 도구로서 널리 사용하는 것을 유지함과 동시에, 파트너십, 제휴, 또는 하도급 형태와 같은 비 지분 투자 형태에 의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힘. 이런 비 지분 형태의 투자는 회사들이 위험을 공유하고, 그들의 투자 지출을 줄이고 지역이나 생산 제품의 노하우, 기술, 시장 점유의 상보적인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함. 재정 제약의 증가로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적인 M&A나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같은 지분 투자 형태를 도구화 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설문 응답자들은 경제위기가 비 지분 투자로의 확대와 의존의 원인은 아니라고 말함. 국적에 상관없이 단지 응답자의 5분의 1 만 (figure 3)이 경제위기가 파트너십이나 라이선스와 같은 비 지분 투자 형태로의 의존을 증가시켰다고 말함 (figure 17). 이것은 비 지분 형태의 투자가 장기적이고 지분 투자를 대체

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 추세가 나타남을 제시.

Figure 17. Responses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creased TNCs' reliance on non-equity investment modalities, by home region
(percentage of responses from the TNCs surveyed)



Source: UNCTAD survey.

-UNCTAD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kotra 자료 10-077-

발행인 : 조환익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0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제작년도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